



## 문화가 경제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한국의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유럽 최대 음악시상식에서도 4관왕에 올랐다. 이 정도면 필자 세대가 젊은 시절에 열광했던 비틀즈, 아바, 퀸 등과 같은 수준이다.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문학작품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전 세계인이 우리의 감성을 즐긴다. 실로 놀라운 변화다. 무엇이 우리의 문화수준을 세계적으로 만들었을까?

한국의 경제발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강의 기적'이다. 이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한국 경제성장의 대명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이렇게 빠른 경제발전 성과를 이뤄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경제발전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이로운 성과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비논리적인 용어가 등장한다. 그러나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 반드시 발전할만한 이유가 존재한

다. 그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개인의 생활수준 발전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 각자가 열심히 살아왔고,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졌다. 이것이 합해져 한국의 경제 기적으로 표출됐을 뿐이다. 가난했던 시절엔 문화 또한 열악했다. 세계의 관심이 있었을 리 만무하고, 우리 국민조차 문화에 관심을 둘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로지 돈을 벌고 모아야 한다는 목표뿐이었다. 이런 국민 개개인의 땀과 노력으로 한국은 1980년대부터 세계가 놀라는 수준의 경제권으로 진입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문화를 원하게 된다.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자식의 빵과 교육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 음악, 미술, 문학 등 문화영역에 흘러가게 된다. 문화 및 예술가들이 탄생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 문화와 예술을 돈 주고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작품을 사줘야 한다. 그래서 경제성장 다음 단계에 문화가 생성되는 구조다. 때론 문화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논자도 있지만,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 이끄는 시대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문화의 국경 간 흐름은 간단하다.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흐른다.

마치 자연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때 빈민국이었던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문화의 국경 간 흐름은 간단하다.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흐른다. 마치 자연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때 빈민국이었던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문화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함을 의미한다. BTS 노래와 춤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이고, 한국의 소설과 시가 주는 감성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문화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BTS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현대의 승용차보다 훨씬 높다. 한국 문화도 언젠가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의미다. 오로지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문화는 다양하게 생성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대박을 친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에 3000여 권 장서로 설립되었다. 68년이 지난 지금엔 700만 권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문화는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며, 책이 가장 대표적 형

태다. 우리의 문화발전 속도를 책으로 표현하면, 68년 만에 3천 권에서 7백만 권으로 증가했다. 이제 7백만 권의 장서는 우리 국민이 지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결국 경제발전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수준이 곧 경제발전의 수준이 된다. 7백만 권의 장서는 7백만 명의 생각을 담는다. 이들 생각은 서로 달라서,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자유롭게 7백만 가지 생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 나올 수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선 문화가 없고, 오직 경제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에서 새롭게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한때 해외에 나가면 한국이라는 이름보다 삼성과 현대가 더 유명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보다 BTS가 더 유명한 시대가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한'의 정서를 소설과 시로 표현한 문화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의 '한'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인이 열광하는 때를 그려본다. 🌍